

## 〈여호와께 감사하라〉 목장교재 목자용 지침서

11/19(주일) 설교 내용

시편 136:1-2

1. 오늘 말씀에서 감사에 대한 세가지 지침을 주셨습니다. (밀줄 부분 참고) 자세히 보면, 그 지침들은 조금씩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가지 지침에 대해 함께 나눠 봅시다.

감사에 대한 세가지 지침은,

1.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2.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3. 감사가 체질화 되어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 세가지의 지침은 조금씩 점진적인 특성을 갖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 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으로 인해 감사함을 회복한다면,
- ② 존재케 하신 것 뿐 아니라, 믿음주시신 것에 대한 감사도 회복되어야 하며,
- ③ 이러한 모든 단계를 뛰어 넘어, 이제는 감사가 체질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가지 단계를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 까지 이르도록 노력하자고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목장교재 2페이지에는, ‘감사가 체질화 되기 위한 두가지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방법이 무엇인지 말해 보고, 두가지 중 나에게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감사가 체질화 되기 위한 두가지 방법을 2페이지에서는 소개합니다.

- ① 감사는 찾아야만 합니다.
- ②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에 대한 부연설명들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고, 두가지 중 어떤 요소가 나에게 필요한 요소인지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나는 감사를 찾지 못하고 불평만 하고 있지 않은지?
- 감사는 알겠는데, 정작 그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다양한 서로의 생각들이 나오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올 한해를 돌아보며, 우리 목장 식구들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하여 그 사람에 대한 특별한 감사를 표현해 봅시다.

목장안에서 한 사람을 지목하여 특별한 감사를 표현하자고 질문을 내어 드린 이유는, ‘추상적인 감사’가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감사를 표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너무 특정 한 사람만 지목되지 않도록 유도해 주시되, 목자는 가장 마지막에 많이 지목되지 않은 분을 지목하여 감사를 표현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제 12월부터는 목장별로 자유롭게 방문이 가능한 기간입니다. 목원들이 부담없이 방문이 가능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